

One pick

핫플레이스



그림 세븐틴이 '인더숲 세븐틴편 시즌2'에서 방문한 경북 봉화군 청량산 하늘다리를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청량산도립공원 공식 홈페이지

'인더숲2'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 기암괴석·하늘다리 '인증샷 명소'

13인조 그룹 세븐틴이 최근 방송하는 JTBC 예능프로그램 '인더숲 세븐틴편 시즌2(인더숲2)'를 통해 경북 안동의 정겹고 푸근한 매력을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프로그램으로 소개한 안동 곳곳에 숨겨진 관광명소는 벌써 각종 SNS에서 팬들의 방문 인증 사진이 올라오면서 '인증샷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첫 방송한 '인더숲2'는 멤버들이 안동의 외진 숲속에 지어진 숙소에서 4박5일간 휴식을 만끽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들은 낯선 마당에서 족구를 하거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서로 깔깔대며 웃고, 모닥불 앞에 웅기종기 모여 연습생 시절을 떠올리는 등 다양한 일상을 통해 청춘의 싱그러움 매력을 담백 드러냈다.

휴식 도중 일부 멤버들이 나들이를 떠난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은 팬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힌다. 멤버들의 행보를 따라가면 청량산 등산 코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승관, 디에잇, 버논은 청량산을 오르면서 녹음으로 질풍문 풍경을 공개했다. 이들이 등산길에 만난 하늘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현수교이다. 1.2m의 좁은 폭으로 인해 일렬로 건너야 하는 다리는 해발 800m 지점의 선학봉과 자란봉을 연결한다.

에스쿱스, 민규, 원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한 청량산도 뽕을 수 없다. 깎아지른 기암괴석 사이에 위치한 신비로운 매력을 자아내는 사찰은 신라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법당인 유리보전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47호로 지정돼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쿠팡플레이 대표 콘텐츠 왜 이러나

SNL코리아 또 '약자 조롱'...비난 거세다

'더글로리' 학폭 회화화 맹비난 'MZ오피스' 편견 조장 의견도 '약자 대상 풍자는 풍자 아니다' 일각선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SNL코리아'가 최근 학폭 소재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패러디한 장면(왼쪽)과 MZ세대를 회화화한 콘텐츠 'MZ오피스' 등을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쿠팡플레이



'SNL코리아'가 최근 학폭 소재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패러디한 장면(왼쪽)과 MZ세대를 회화화한 콘텐츠 'MZ오피스' 등을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대표 콘텐츠인 'SNL코리아'가 약자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패러디로 학교폭력 문제를 웃음 소재로 삼고, MZ세대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풍트로 청년들에 대한 편견을 더해주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미디에 대한 지나친 잣대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시선도 보인다.

● '학폭이 우스워?'...회화화 논란

'SNL코리아'가 최근 콘텐츠 '더 칼로리'를 공개해 역풍을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의 복수를 담은 '더 글로리'를 패러디한 게 문제가 됐다. 드라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고데기로 지지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콘텐츠에서는 고데기로 쥐포를 지지하는 장면으로 대체했다. 학폭 피해자로 등장한 개구우먼 이수지가 구워지는 쥐포를 보며 괴로운 듯 울부짖었다.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장면이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으며 피해자마저 회화화했다고 문제 제

기를 했다. 심지어 '고데기 학폭'은 2006년 청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으로, 패러디해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SNL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Z세대 직장인의 모습을 코믹하게 담은 대표 인기 코너 'MZ오피스'가 MZ세대를 개념 없는 청년들로만 그려 편견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90년생이 온다', '그건 부당합니다' MZ세대 공정의 기준에 대한 탐구' 등을 쓴 임흥택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MZ오피스'의 한 장면을 예로 들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근무 이슈

들은 특정 세대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약자 겨냥한 풍자, 발전적 코미디 아냐'

논란이 거세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코미디는 코미디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소재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코미디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며 "스탠딩코미디, 콘트 등 다양한 코미디 콘텐츠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에 반해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7일 "풍자를 통한 코미디는 힘 있고 권력이 있는 '강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학폭 피해자와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약자만을 회화한 코미디는 풍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표현이 자유를 막아서는 권력자들 대신 자유가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본질에 어긋난 풍자는 'SNL코리아'의 장기적인 발전과 명성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카카오, SM지분 확보 2대주주로...이수만 "명백한 위법" 법적대응 예고

이사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신주 전환사채로 2171억원 취득 이수만 대리인 "지배관계 변동 목적"



이수만 프로듀서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퇴진과 관련해 S M엔터테인먼트(SM)의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카카오가 공시를 통해 SM의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히자, 이수만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SM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SM 설립 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은 이수만 대주주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 비전을 발표하자 소속 배우 겸 가수 김민중이 SM이사회를 맹비난하며 공개 반발했다.

화우 측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

처분을 통해 SM이사회에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M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는 입장이다. 화우 측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SM은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 이수만 대주주와 협의 없이 SM의 소재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해 경영권 분쟁이 심화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최근 SM을 둘러싼 내용은 별개로 사업 협력을 위한 것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TV 프로그램 8일 (수)

Table with 10 columns: 채널 A, 채널 A+, KBS1, KBS2, MBC, SBS, EBS1, TV조선, JTBC, MBN. Each column list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